

## 전북개혁신학원 1학기 개강예배

### 대학부 · 신학부 주야간 학사일정 돌입

전북개혁신학원(학장 임종학목사, 재연교회는 2021학년도 1학기 수업을 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계획한대로 지난 8일(월), 학부 주, 야간 개강예배를, 13일(토)에는 신학원 개강예배를 소강당에서 각각 드림으로 본격적인 학사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강예배는 교무처장 이경근목사가 인도했으며, 학생처장 채영구목사가 기도하고 홍보처장 김관희목사가 에베소서2:19 ~22절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상임이사 유남규목사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이 예배의 설교자로 나선 학장 임종학목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사장 김황용목사의 격려사, 신대원장 정완득목사와 실천처장 유호걸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교수부장 류현옥목사는 1학기에 강의를 담당할 교수진을 소개하고, 총무처장 진상운목사가 공지사항을 전하면서 특별히 신종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확산 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교목처장 유호걸목사의 축도로 학부의 개강예배를 마쳤다.

오후 2시에 드린 신학원 개강예배는 교무처장 이경근목사가 인도하였다. 교수부장 류현옥목사가 기도하고, 사회자가 고후 7:1-2을 봉독하였다. 상임이사 유남규목사의 특별찬양 후에 학장 임종



학목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신대원장 정완득목사의 격려사와 총무처장 진상운 목사의 학사일정과 총회준목교시를 포함한 공지사항과 광고가

있었다. 봄 학기의 교수진들을 소개하고 이어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인사가 있은 후에 이사장 김황용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전북개혁신학원의 1학기 신입생

현황은 학부9명과 신학원6명이며 신, 편입생 중에는 일반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고무적이며, 전체 재학생수가 49명으로 밝혀졌다.

## 찬양교회 예배당구입 이전 준비

### 코로나 19 위기 중에 들려온 기쁜 소식; 1층과 지하 110평 구입



이다윗 목사

리어 공사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총회 부서기인 이다윗목사는 2008년 10월에 남노회의 위임을 받고 사무중이다.

찬양교회의 현 예배당은 동대문구 전농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다윗목사 위임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모범적인 교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그동안 주변 환경의 변화와 고가의 임대비가 부담스러워 새로운 예배처소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온 성도들이 기도제목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동대문구 답십리에 아주 적합한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가 인도하셔서 계약하고 입당을 준비 중이란다.

어느 교회나 예외 없이, 특히 도시교

회가 예배당 건축은 물론 이전에 따르는 문제들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찬양교회의 경우 성도들의 뜻을 모아 합의하기를 기존의 성도들이 아무 무리 없이 함께 옮길 수 있는 거리이어야 하고, 현재의 시설규모(예배실, 교육관, 친교실 등)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되, 예산규모를 최소한 현상 유지함으로 성도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건물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으나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동대문구 답십리 소재 예배당장소로 1층과 지하층(110평)을 구입한 것이라고 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어 일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연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도들 간에 비전을 공유하지도 못하였지만 성도들의 하나된 간절한 기도에 응답으로 성전 구입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한다. 찬양교회의 담임 이다윗 목사는 총회 부서기로, 총회개혁신학연구원의 총무처장으로 섬기고 있는 본 교단의 재임이다.

## 전북동노회 제171회 정기회 성료

### 노회장; 생명의 빛 교회 정인직 목사 추대

전북동노회(노회장 정대진 목사)는 지난 9일(화) 제171회 정기회를 전북개혁신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하여 임원선출 등 회무를 원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기회에 앞선 개회예배는 부노회장 정인직 목사(생명의 빛 교회)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노회 회계 이영진 장로가 기도하고, 서기 주상기목사(좌포은총교회)가 고전 1:30, 31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노회장 정대진 목사는 “주안에서 자량하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회장 이경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 171회기 임원명단  
노회장:정인직 목사(생명의빛교회)  
부노회장:주상기 목사(좌포은총교회)  
서 기: 양기만 목사(명화의문교회)  
부서기: 이하중 목사(하늘문교회)



회의록서기: 이길한 목사(큰사랑교회)  
회의록부서기: 이한희목사(세리마교회)  
회계: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  
부회계: 송정섭장로(새생명교회)

## 장학금 전달 ; 평안교회 장학위원회

### 평안교회재적 대학생 7명을 포함 12명 수혜

전북 동노회 평안교회(이경근 목사) 장학위원회는 지난 21일(주일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2세 교육을 위한 비전을 온 성도들이 공유하는 뜻있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혜자 중에는 전북개혁신학원 재학생 김영선을 비롯한 대학생 7명, 고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초등학생 2명

이 포함되었다. 평안교회는 2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무 위원회로서 “평안 장학위원회” 두고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미 장학기금으로 1억 원이 조성되어 있다고 한다.

2021학년도 장학금 수혜자는 대학부(7명)/김영선 임익현 최형원 이동인 서



민아 최성진 권사랑, 고등부(2명)/송준하 강민선, 중등부(1명)/이민규, 초등부(2명)/김수연 손재호)이다.

### 메 시 지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총회장 이경근 목사  
(평안교회)

[효과적인 인간관계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최선의 것을 개발하는 방법은 격려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발명가 헨리 포드가 어렸을 때 그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엔진 도면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 기계제작 전문가들이 많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큰 용기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합니다. 에디슨은 헨리 포드가 낙심 중에 있을 때 그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에디슨의 격려의 말에 힘과 용기를 얻어 결국 자동차를 발명해 내었다고 합니다. 그 후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산 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도 “인간의 가장 고상한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하는 의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격려가 없으면 쉽게 절망할 수도 있고 큰 염려와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격려의 말 한마디는 진흙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아주 훌륭한 밭줄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고 “여자를 칭찬하면 죽은 여자의 심장도 뚫다”는 말도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비타민제 보다도 더 사람을 활력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자신도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왔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성도들과 교회 일꾼들을 찾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간절히 받고 싶어합니다. 부모의 격려와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 가운데 애정결핍이나 성격불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창조적이며 자신감에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칭찬과 격려의 대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격려의 대가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산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발명을 권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 재산으로 남을 돕기도 했지만 그는 만나는 사람들을 말로 위로하고 권면하기도 잘 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많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의 잘못이나 들춰내고 남의 약점이나 꼬집어서 말해서 상대방의 기를 꺾어버리고 상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를 잘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상 살 맛이 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는 “웃감은 염색에서 술은 냄배에서 꽃은 향기에서 그리고 사람은 그 말에서 그 땀땀이를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말투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향기가 발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축 부 활 “예수 다시 사셨네”



### 총 회 장



이경근 목사

### 목사부총회장



박형진 목사

### 장로부총회장



김재호 장로

### 서 기



신연식 목사

### 부 서 기



이다윗 목사

### 부회의록서기



진상운 목사

### 회 계



박병옥 장로

### 사무총장



박만진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 이경근 목사  
서 기 : 신연식 목사

(우)03127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  
전화 02)742-3538



## 社 說

##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종종 언론매체에 "증인 사생활보호"에 관련된 뉴스가 실린다. 검경의 각 중수사기국이 공판과정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서 관련증인들의 신변과 사생활보호에 허점을 드러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증인과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서 진술을 꺼려하게 되므로 증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뉴스거리가 되었다.

"나는 분명히 그 사실을 목격했다."고 당당하게 나서서 증언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나는 그 현장을 확실하게 보았노라!" 이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말하는 증인이 없어지면 그 사건은 미궁으로 묻히고 미제사건이 되고 만다. 세상에서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더라도 불구하고 종종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어서 아주 있던 일들처럼 덮이고 마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증인과 증거를 없애보려는 몸부림도 심각하다.

지금 사회편을 달구는 세 살 어린아이의 행적을 찾는 어이없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목격자를 찾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유전자 검사결과까지도 못 믿겠다는 그 엄마의 억지(?)를 해결할 증인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 누구도 내가 증인이라고 나서서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그에 따르

는 불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인, 목격자의 증언은 이익이나? 불이익이나? 하는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인들이 도망하고, 심한 경우에는 피해자들마저도 2차 보복이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진실을 은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심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건이요 톱뉴스요, 특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퍼지기 시작해서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그 뉴스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허다하니 증인된 우리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4월 4일, 금년도 부활주일일 앞두고 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19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소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이다. 부활의 증인들이 백년을 무릎 쓰고라도 예수의 확실한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 증인은 본 대로 말해야 한다. 느낌을 말해서는 안 된다.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그 증인이다. 이 증언은 아주 특이해서 살오로 증언해야 한다. 내가 부활의 사람으로서 나를 보라!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어디 없는가?

##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되는 방역사국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사람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한숨소리가 드높고 골목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자영업자들은 손을 놓아버린 지 오래다. 불안 곳에 기름을 붓듯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부동산 투기, 그것도 국가 정보를 훔쳐내어 조직적으로 투기판을 벌인 어이없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권까지 흔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그런 때를 살다보니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들 아파이다. 이렇게 어려워도 아니 이보다 더 어려워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아니 할 수 없다. 그래서 서둘러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등교시키

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일도 그러하고 가정의 일 역시 그렇다. 그래서 엄청난 방역지침에도 양가의 상견례의 경우에는 모임의 상당 숫자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해야 할 일은 미루거나 생략해서는 안 된다. 비상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총회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교단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주문한다. 신년례회에도 열지 못하고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나마 목장기도회는 5월에 개최하기로 잠정 결의해 둔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 19를 핑계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목장기도회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민간의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이라 하지 않았는가? 준비하고 대비해서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다.

## 전북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

## 제363차 월례회를 겸한 정기총회로 모여; 전북개혁신학원에서

전북 동노회 여전도회 연합회(회장 홍복순권사)는 지난 16일(화) 제363차 월 정기모임을 겸한 정기총회를 전북개혁신학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 앞선 개회예배의 인도자는 회장 홍복순 권사(장수은강교회)였다.

회계 김원자권사(장수은강교회)가 대표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미가7:14-15 말씀을 봉독하였으며,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었다.

설교자로 나선 이종봉 목사(낙원교회)는 "주의 자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을 선포하였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하여 이하종 목사(하늘문교회)가 기도하였다. 총무 유하순 권사(낙원교회)가 광고하고 김종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계속된 회무는 홍복순 권사가 의장으로 나서 진행하였으며,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전 회의록 낭독, 감사보고, 회계보고, 그리고 임원선출과 신규 임원교제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한편 낙원교회는 이날 중식과 다과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섬김으로 회원

들의 귀감이 되었다.

신 임원 명단 :  
회 장 홍복순 권사 (장수은강교회)  
부회장 배순심 권사 (동명교회)  
서 기 류성란 권사 (평안교회)  
부서기 김영숙 권사 (좌포은총교회)  
회 계 김원자 권사 (장수은강교회)  
부회계 김정희 권사 (금성교회)  
총 무 유하순 권사 (낙원교회)  
감 사 하영숙 권사 (엠마오교회)  
윤순일 권사 (평안교회)  
김수열 권사 (금성교회)



역원  
교목부 부장 강해숙 권사 (더풍성한교회)  
차장 박인순 권사 (금평교회)  
선교부 부장 배정미 권사

차장 김은하 권사 (평화의문교회)  
음영부 지휘 김대성 목사 (은혜의빛교회)  
반주 류성란 권사 (평안교회)

## 한교연 사회복지시설 등에 마스크 10만장 전달

## 소외된 그들에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23일 오후 사회적 약자 돌봄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등 40여개 단체와 회원교단 등에 방역 마스크 10만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한교연 회의실에서 진행된 방역마스크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곳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방역마스크를 전달하게 되었으니 부디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교연은 이날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 노숙인 무료급식소 참좋은친구들, 사단법인 성민원 내 성민재가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한국사각장애인연합회, 선민네트워크 탈북동포회, 순교자기념성교회, 다문화복지센터 등

에 방역 마스크 5만장을, 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30여 회원교단 단체에도 각각 전달했다.

이날 한교연이 전달한 마스크 10만장은 글로벌코리아 뉴딜국민그룹(대표 박항진)으로부터 기증받은 전량이다.

## 포 토 뉴 스



전북동노회(노회장 정대진 목사)는 지난 9일(화) 제171회에 4교회와 5명의 목사님 가입이 있었다. 김병설 목사, 박양미 목사(산마루교회) 강윤혜 목사(생명수기도원) 김금량 목사 (은혜의 빛 교회) 손경희 목사(생명샘교회)

## 경기노회 제195-2차 임원회 소식

## 중경노회장, 임원 및 시찰장 연석회의; 제196회 정기회 장소 확정



경기노회(노회장 박동혁목사)는 지난 21일(주) 오후 5시 교단본부에서 제 195-2차 중경노회장, 임원 및 시찰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서기 전기원 목사(예성교회)가 인도하였으며, 중경노회장 박광식 목사(꽃밭교회)가 기도하고, 회의록서기 류성훈 목사(소망교회)가 마태13:14-21절을 봉독하고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는 주제로 노회장 박동혁 목사(더스토리교회)가 말씀을 선포하였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쳤다. 곧이어 진행된 회무는 노회장 박동혁목사가 의장으로서 진행하였다.

서기가 회원 점명하여 12명 참석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회순제택, 회계보고로 이어졌으며, 제196회기 상비부서 편성을 마친 후에 접수된 신앙위원의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인사부로 전달하였다. 이어서 각 시찰보고와 신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상정된 중요 안건은 노회 예정 기준을 정비하여 현의하도록 했으며, 노회장소를 중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단으로 결정하고, 선관위원회 임과 모든 서류접수 마감일을 3월 29일로 정하였으며, 노회 폐회후의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한 일들이다.

## 總 會 改革公報

창간일: 1984년 10월 1일  
등록일: 2012년 8월 27일

서울다-10503호 발행인 이경근 사장 황호관 이사장 이충년 인쇄인 김갑기

대표전화: (02)742-3538 http://rpcknews.com 웹하드: RPCK1004/개혁총회  
주필 황호관 편집인 박만진 논설위원장 김양섭 취재부장 유남규  
게재번호: 총협 301-0140-5587-41(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6길 73-4(연건동 195-15)  
총회홈페이지: www.rpck21.org E-mail: pmj0675@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신학연구원

## 신·편입생 모집요강

## 총신대학(합동) 사이버대학 학생 모집



이사장 윤서구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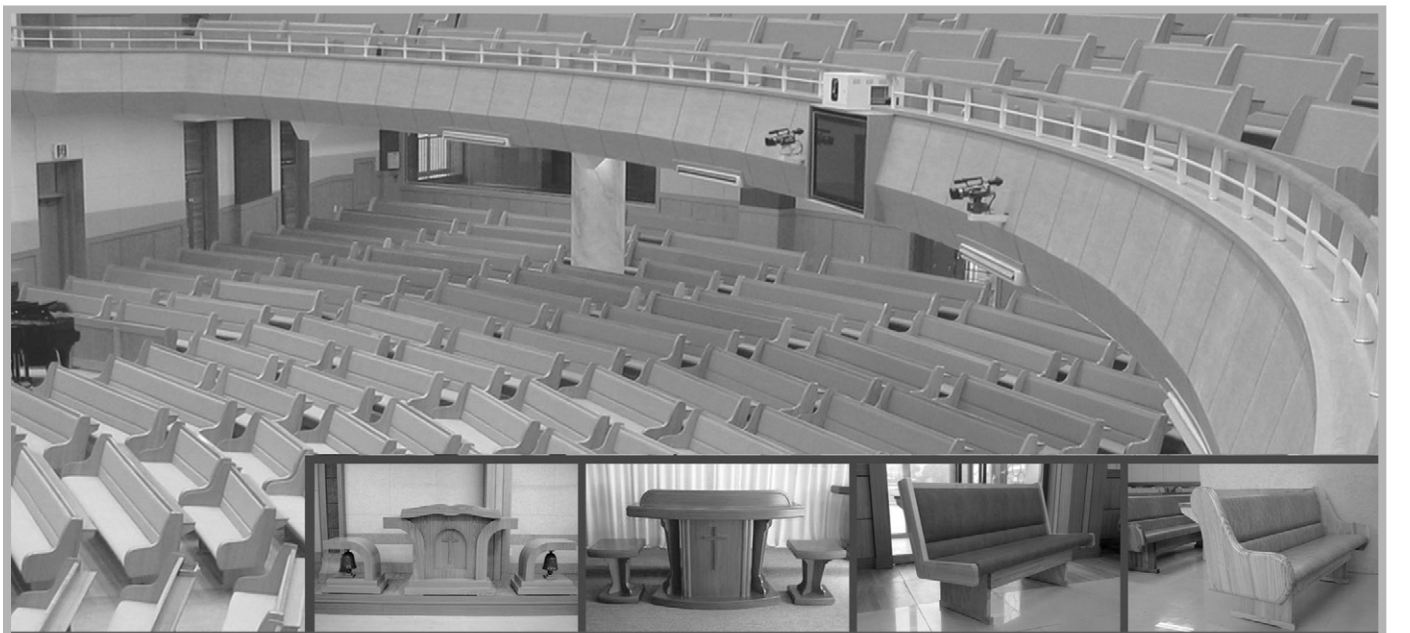
원장 임종학 목사

과정	자격	학제	특전
목회학석사 (M, Div, eq)	-일반대 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신학교 졸업자	6학기	* 교육부학사학위(사이버) * 졸업 후 목사안수 * 미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대학교) * 졸업 후 목사안수
목회학 박사 (D, Min)	- 목회학석사(M, Div) 학위 - 목회경력 5년 이상자	6학기	* 미 연방부 인정학위 (오이코스 대학교)
대학부	- 고등학교졸업 - 지방신학 3년 졸업	8학기	* 교육부 인정 학위(사이버) * 오이코스대학교 편입
사모대학	- 현 목사 사모	2학기	

\* 총회인준신학교 전북개혁신학연구원

\* 총신대학교 - 원격 평생교육원  
서울 사이버 에듀

1. 접 수 : 2020년도
2. 수업장소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연건동 195-15)
3. 문 의 처 : 총회개혁신학연구원 010-7294-0571 / 02)742-3538
4. 후원통장 : 농협 317-0013-9840-4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대표이사 김재호 장로  
010-3653-6162  
(본교단 전북동노회 한소망교회 시무)

## (주)모리아성구사

기술 특허 업체  
품질 인증 업체  
벤처기업인증업체

문의 1644-6162

## 사훈

신앙: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며  
품질: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자세: 최선을 다하여  
목표: 세계선교를 이루자

강대상, 장의자, 개별의자, 극장식 의자, 레자 방식, 성가대 가운 등  
기타 성구품목 전문생산



모리아성구사  
www.moriah.kr

서울사무실 : 고객센터: 1644-6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16(송파동) 3층  
전주공장 : 일반전화: 063)211-6161~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7가 797-4  
인도네시아 공장 : 14A Block F1 Tamman Pinang Indha, Sidoarjo, Surabaya Indonesia



신학강좌



정일웅 박사

참고문서 : 정일웅,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종신대출판부 2012

4) 교회공동체의 통일성을 견지해 주는 신앙의 표조적인 역할이다.

필자가 앞에서 밝힌 대로,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의 교회의 신앙고백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앙고백에 근거한 요리문답교육의 목표는 언제나 공동체의 찬양의 목소리로서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이와 같은 일치된 신앙고백으로 인도하였고, 동시에 다른 목소리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시대에 교회공동체를 지역과 종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전 세계의 개혁신교회와 장로교회를 하나의 통일된 교회공동체로 견지되게 해 준 표준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며, 또한 그런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교회공동체의 통일성을 견지하게 해 주는 역할로서의 신앙표준과 통일성의 역할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해설

필요하며, 역시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숙고를 요한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내하며, 관용하며, 깊은 이해를 통하여 하나로 엮어가는 다스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까? (신앙의 폴레랑스의 필요성이라고 할까?). 생각하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경공부’가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을 대체하는 신앙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그 일에 열중해왔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가치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그 효용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 방법을 적용할 생각을 같이 있게 하지 못하였다. 결국 성경공부방식에 전적으로 의존된 한국교회는 성경을 하 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려는 노력과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과 그에 따른 신앙양태들은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궁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경해석의 지나친 주관성과 주관적인 신앙체계의 주장들로 인하여 역사적인 신앙교리와 신앙고백이 설자리를 잃어 버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한국교회는 역사적인 신앙고백과 신앙교리의 역사성을 무시함으로 올바른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한 채, 신앙고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으로 여겨진다. 그것들이 지금 겪고 있

는 한국교회의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시비들이요, 진리혼돈의 현상들이 켜이다. 또한 그동안 이웃을 향한 복음전도에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복음전도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 자기교파와 개교회 의 몸집불리는 일(양적성장)에 과도한 교파경쟁을 마다하지 아니했던 결과가 다양한 교파와 다양한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한국교회로 만들어 놓게 된 셈이다. 어쨌든 한국교회는 신앙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신앙의 표준과 통일성을 견지하는 일에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치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25)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신앙고백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교회공동체의 한 목소리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찬양의 의미를 가진 것이며, 동시에 다른 목소리를 구별(이단분별)하는 특성을 가진 것이었다. 이에 걸맞게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은 교회공동체의 신앙고백을 목표로 신앙교리의 체계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에 근거하여 새 신자와 청소년과 기존신자의 신앙을 깨우는 신앙의 지적인 능력을 전수하는 일과 신앙관을 세우는 일과 성경해석의 기본적인 열쇠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신앙의 표준과 통일성을 견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요리문답교육은 루터에게서 알게 된 것처럼,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할 때, 그들이 기독교신앙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며(십계명), 무엇을 믿어야 하며(사도신경),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주기도문)인지를 지도하는 교회의 교육적인 행위”라는 정의에 걸맞게 각 시대마다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목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도 확인하였다.

이제 본 논의의 결론으로, 한국장로교회의 신앙역사와 전통을 생각할 때, 역사적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대,소요리문답서는 한국장로교회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역사적인 ‘신앙교육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록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현대 목회 상에서의 적용에는 몇 가지 점에서 그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이해를 담아 낸, 특히 산업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독교사회윤리적인 통찰을 포함한 역사적인 요리문답서의 해설서를 통해 서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신앙고백

의 통일성을 지닌 ‘새 요리문답서’(New Catechism)를 통해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고백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특별히 지금 심각한 교파분열과 과도한 교회성장의 치열한 경쟁목회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한국장로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를 생각하면, 교회연대와 교회연합과 교파통합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서로 다르다고만 주장하면서 자기교파를 상대적으로 차별화시키던 행위를 멈추고, 서로 공통되며 일치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신앙고백적인 차원에서 찾아내고 발견하여,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역사적인 신앙의 통일성과 신앙의 표준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언제나 시비 거리가 되며, 논쟁의준데 있는 한국사회의 사이비종파와 이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다시 한 번 역사적인 요리문답교육의 가치를 새롭게 인지하고, 특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매진하기를 권고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반석위에 세워진 든든한 21세기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이러한 일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후예들로서 마땅한 일이며, 또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성숙한 신앙적인 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기대한다. 감사합니다.

가 재입하시느 배마를 탄자의 군대와 전쟁을 하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향불 붙는 못에 던져잡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스리는 천년기간 동안 예수가 하늘에서 머무시듯 사단도 무지경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자 곡과 마곡의 군대를 이끌고 성도들의 진을 공격하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귀도 불과 유향 못에 던져잡니다.

21장-22장5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 신천지지가 설립되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성의 그 찬란한 모습과 그 구조와 크기와 재료들을 통해(완성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그것을 구성하는 성도들의 영생복락의 삶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6-21에는 이와 같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이 일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감격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끝맺고 있습니다.

동 정



이경근목사 - 개강, 노회

이경근목사(총회장, 평안교회는 2월 26일(금) 세계선교회 참석하여 축도를 하고 3월 8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 인도를 하였으며 9일(화) 전북동노회 제171회 참석하고 축도를 하였다.



임종학목사 - 설교

임종학목사(증경총회장, 재언교회는 2월 26일(금) 총회 세계선교회도 참석하였으며 3월 6일(토) 총회개혁신학교 강의를 하였고 8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 설교를 하였다.



류현옥목사 - 개강,노회

류현옥목사(증경총회장, 동명교회는 2월16일(화) 전북개혁신학 교수간담회 참석하였고 26일(금) 총회 세계선교회도 참석하였으며 3월8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 참석하고 9일(화) 전북동노회 제171회에 참석하였다.



황호관목사 - 강의

황호관목사(증경총회장, 본보사장은 3월 6, 13, 20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강의를 하였으며 15일(월) 3월 개혁신보 주필을 하였다.



정안득목사 - 축사

정안득목사(증경총회장, 성언교회는 3월8일(월) 전북개혁신원 개강예배에 축사를 하였다.



윤서구목사 - 강의

윤서구목사(증경총회장, 임마누엘교회는 2월 27일(토) 3월6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교회간 강의를 하였다.



신연식목사 - 귀국

신연식목사(총회서기, 디베라교회는 미 서부지역으로 2월에 출국하였다가 3월 4일(목) 귀국하였다.



정인직목사 - 노회장

정인직목사(전북동노회장, 생명의빛교회는 3월 9일(화) 전북동노회 제171회 노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유남규목사 - 축가

유남규목사(전북중부노회장, 어울림교회는 3월8일(월) 전북개혁신학원 개강예배에서 특송을 하였다.



박만진목사 - 강의, 한교연

박만진목사(총회사무총장, 덕소제일교회는 2월27일(토) 총회개혁신학원 강의를 하고 3월3일(수) 한교연 임원회 참석하였고 6.13.20일(토) 강의를 하였으며 22일(월) 신문 편집을 하였다.

신학&신앙



장영 목사 (신학 교수)

요한계시록의 전체 줄거리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장은 요한계시록의 “준비진술부분”으로 누가 계시를 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누구에게, 어디서 쓰고 있으며, 그와 독자들은 어떤 관계이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떤 본인지 등을 밝혀, 읽을 준비를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지상교회가 대내외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형편을 보여주는 지상배경부본이고, 4,5장은 천상배경에 해당하는

데, 4장은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자가 되심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5장은 어린 양이신 성자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 손으로부터 일곱 개의 인봉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하나씩 떼자 인봉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봉재앙으로 사람들이 무서워 놀라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6:17). 이 질문에 대해서, 7장은 그 대답으로 영적 이스라엘 144,000명이(성령으로) 인침 받는 장면이 전반부에 나오고(7:4-8), 후반부(9-17절)에는 그들이 환난에서 구원받고 복락을 누리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8-9장의 나팔재앙의 성격은 인봉재앙과 같이 제한적이며 부분적입니다. 앞에서 인봉재앙은 온 땅의 1/4에, 그리고 이 나팔재앙은 온 땅의 1/3에만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시키려는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20-21에 보면, 그들은 여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10, 11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증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남은 자들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구하신 후에는,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을 기다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심판적 성격의 대접재앙만이 남았습니다.

대접재앙은 15,16장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왜 하나님이 대접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12-14장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12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싸움에서 패배한 용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옵니다. 13장에서는, 용의 하수인

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은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고 계십니다.

이제 15,16장에서는 일곱 대접 부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16:17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는 큰 음성과 함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17-19장까지는 그 바벨론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장에서는 음녀-바벨론과 짐승-적그리스도의 정체와 그들 사이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으며, 18장에서는 음녀-바벨론과 거래하던 세상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전반부에서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루어졌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19장 후반부에서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군대

본보 발행을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경근 목사 발행인



이충년 목사 이사장



황호관 목사 사장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화: 02)743-3538, 010-6358-0191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본보 후원하신 분

광 고	3,300,000	임용태	300,000	이충년	300,000
총회신학교	600,000	강대민	200,000		
이 경 근	600,000	박준배	350,000		
경기 노회	300,000	소성교회	300,000		
전북 노회	300,000	디베라교회	50,000		
전북동노회	200,000	박경남	1,800,000		
전북중부노회	150,000	김선영	350,000		
서울남노회		주향교회	50,000		
서울동노회		새생명교회	100,000		
경서 노회		이다윗	50,000		
경중 노회		이해동	200,000		
남부 노회		김형용	100,000		
김 양 섭	100,000	유한수	50,000		

- 후원이사 매월 200,000원, 100,000원
- 노회이사 매월 100,000원, 50,000원
- 개인예배광고 년 300,000원
- 1년 1번 구독료 50,000원
- 기타 개인후원 등등

연 구독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사장 황호관 목사

“전국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본보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실 곳

농협 301-0140-5587-41

예금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년에 한차례 구독료를 보내주시면 신문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년 구독료는 5만원입니다.

- ※ 예배광고비는 연간 30만원입니다.
- ※ 송금 후 총회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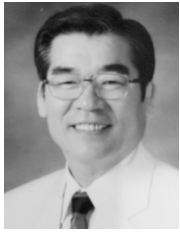




지상설교

# 부활의 예언

(시편 16편 1-16절)



강대민 목사  
(중앙교회장)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에 자기에게 관해 쓴 바를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말씀을 거듭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바울의 안디옥 설교에서 오늘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버려지지만 썩지 않으시고 새 생명으로 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말을 하고 있으나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메시야 예언이고 부활 예언입니다. 다윗의 시체는 썩었습니다. 여기서 썩지 않았다고 한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 1. 하나님과의 관계

매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부활을 믿었으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좋아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하였습니다(2절). 환난 때나 평온할 때나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우리에게 개는 최악의 위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1절). 이 하나님은 곧 전능자입니다. 또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2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주를 찾았습니다(2절). 그분은 주권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합니다.

## 2. 이웃과의 관계

다윗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악한 무리와의 교제는 멀리합니다(4절).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는가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 3. 현세의 복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현세적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잔이 되십니다(5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십니다(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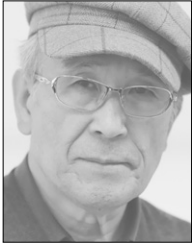
또 하나님은 줄로 재서 폭막게 주셨습니다(6절). 이 복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영원한 기업, 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安然히 거하게 되었다”(9절)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족할 때 은혜해 주십니다(7절). 또 우편에서 지켜주십니다(8절).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 4. 미래의 소망

다윗은 미래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복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부활의 복입니다. 우리가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영원을 얻을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으로 알 수 있으며 또 신앙의 논리로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11절).

우리는 이 믿음의 줄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째 아담의 실족으로 다 죄로 떨어졌지만 둘째 아담되신 예수님이 다시 사시사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온전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칼럼



靑牧 文 勇吉 목사  
(한마음교회 원로)

代身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대신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무화과 나뭇잎을 벗겨내고 짐승가족의 옷을 지어 입혀셨을 때 대신 죽은 희생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행하게 대신이라는 글자를 우리 뇌리에 새긴다. 창세기 22:13은 이 대신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가슴에 깊이 아주 선행하게 찍어 놓는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

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곱짜없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제물로 드려질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 결박한 이삭을 앞에 두고 맥을 따르고 비수를 치켜들었을 때 만감이 교차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신, 이삭을 대신한 숫양의 아들 대신은 참으로 놀라운 해답이다.

그 뒤엔 아담이 이 대신을 자신의 전유물로 여기고 뽕망 이용하는 파렴치를 보여준다.

그는 아비 이삭의 눈을 속여 형에서 대신 아비의 축복을 빼앗는다. 그 후 밧단아람에서 라반은 동생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에 밀어 넣는 해프닝을 벌린다. 또 무자한 라헬은 자기 대신 시녀 빌하를 아람의 품에 안겨줘 단과 납달리를 얻자 레아도 실바를 자기 대신 남편의 품에 안겨주므로 아람의 가족사의 대표적인 말이라던 代身을 들출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어린

양으로 신약에서는 우리 구속을 위해 예수를 우리 대신 입을 온통 도포(塗布)하셨다. 물론 속은 예수가 우리 대신이니 겉과 속이 대신으로 충만하다.

우리는 철저히 나를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속죄 프로그램에 의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었다. 철저히 전폭적으로 우리를 대신한 어린양 예수로 이뤄진 생명의 역사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한 일인가? 생각할수록 그 신비는 쉽게 풀리지 않으나 명백한 해답은 대신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어린양 예수로 우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이 되는 일이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최근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이야기가 있다. 풀은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갈려고 거리로 나왔으나 금요일 저녁시

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는데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동료들이 손잡이달려가 잡아탔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돼 과일과 야채가 바다로 굴러 떨어졌는데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았으나 풀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고 일행을 떠나보내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니 울고 있는 할머니는 시작장애자였다.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며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주어 답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든 손해 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물었다. “Are you JESUS?” 이 말에 당황한 풀이 “나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 밖에 없어서 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그랬는데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 You must be JESUS.”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풀은 비행기를 놓치고 하룻밤을 다시 뉴욕 호텔에서 머물며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 나를 예수님으로 착각한 사람이 있었는가? 이 고민은 우리 몫이다. 나는 크리스천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마14:16) 가서 너희와 같이 하라(눅10:37) 주님은 우리가 주님 대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주님을 대신한 삶은 어떤 것かと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의 삶이다. 금년 부활절에는 예수 대신(代身)의 삶을 살기로 다짐함이 어떨까?

선 교 지



## 부족한 응원

주일 모임에 참석하지 않기에 아직 저의 공동체의 형제라고 할 수 없는 변화사로 일하는 믿는 자 S 형제(43)가 믿지 않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밝고 있다고 제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제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지만 믿는 자가 된 S를 보고 믿지 않는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침 K 시를 방문한 E 시의 현지인 사역자 V 형제와 함께 그의 오피스를 찾아가서 아내와 화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S 형제의 아내

를 위해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연말에 현지인의 정치성 때문에 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동체로 나오는 트램바이(Tram) 안에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 늦은 오후 시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분실물센터가 있는 트램바이 종점인 S 대학교역으

로 갔습니다.

센터 직원이 제게 휴대폰이 어느 회사제품인지를 묻고 곧 내어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쨌면 이 작은 일이 현지인을 향한 이유 없는 미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어서 회개했습니다.

일지리를 잃고 분노와 슬픔 가운데



# 기쁨 사랑의 2월 소식

살던 한 청년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돈이 없는 것을 알고도 삼각지 로타리의 한 분식점에 들어가 칼국수를 두 그릇 먹고 돈이 열리자마자 냅다 뛰어서 도망갈 때, 뒤에서 들리는 주인 할머니의 욕이 아닌 진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다쳐!〉 청년은 주인 할머니의 음성을 듣자마자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분노가 사탄이 묶은 사슬임을 깨닫고 삶이 변했다는 기사를 떠올리며 저도 저 자신의 귀에 어떻게 말해 봅니다. 〈그냥 충성해! 어설픈 비판하지 말고!〉

## 기도 제목

1. 주말 전체통금으로 인하여 랜선 주일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시 모일 수 있도록,

2. E 시의 공동체를 섬기는 V 형제의 자녀 스키의 심장병이 회복되며/ 그가 K 시의 한 병원 원무과에 취업할 수 있기를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 시의 공동체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도록

3. A 시의 A 자매가 다른 도시에 가서 항암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어서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4.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K 시의 S 형제 부부가 화해하고 가정의 회복되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후원관리 : pay to the order: GMP America(김기쁨사랑지정) P. O. 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



# 전북동노회 제171회 정기회



노회장 정인직 목사

노 회 장 정인직 목사(생명의빛교회)  
부 노 회 장 주상기 목사(좌포은총교회)  
서 기 양기만 목사(평화의문교회)  
부 서 기 이하중 목사(하늘문교회)  
회 록 서 기 이길환 목사(큰사랑교회)  
부 회 록 서 기 이한희 목사(케리그마교회)  
회 계 이영진 장로(좌포은총교회)  
부 회 계 송정섭 장로(새생명교회)



#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성교회



담임 이승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월드비전교회



담임 김선영 목사



더불어 생각할 正論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류현옥 목사  
(중경총회장, 동명교회 담임)

시간이 갈수록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 할 일은 끝없이 다가오고 시간은 짧아지는 것 그것이 생명 있는 인생이다. 살아 있는 생명은 그칠 줄 모르는 도전과 전진을 거듭한다. 살아 있는 생명이란 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은 여호와와 힘이어야 한다. 어떠한 지도자가 서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승패가 좌우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임이 틀림없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지구촌이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야만 하는 현실이 언제 종식될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러한 위기는 교회의 위기로 다가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교가 위축되고, 봉사 활동이 위축되고, 교회의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역의 열정적인 움직임들이 힘을 잃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의 어려움은 결국 교회의 어려움으로도 다가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저들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후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도전의 기회로 삼았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 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내가 찾고 만들고 도전하면 된다. 도전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도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갈렘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다. 점령하기 쉬운 곳이 아니지만 도전하겠다고 한 것이다(수14:12).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조금씩 만들어 간다는 것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

입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하는 것은 단지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겸손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으로, 나의 지나온 경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 차게 시작을 했다가 도 위기나 어려움이 앞에 닥치면 후퇴하거나 중단할 수 있기에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설사 용기를 내어서 내가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나 염려로 인해서 온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림길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매일 우리는 길을 가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교만이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거기에 길이 있고 승리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을 때 불가능한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삼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힘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더 막강한 힘이 생긴다.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지라도 정, 재계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 될 때 그 힘은 막강해질뿐더러 국력이 크게 신장되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갈 때 새로운 도전으로 더 큰 일을 할 뿐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물이 기름과 하나 될 수 없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 될 수 없으며,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될 수 없듯이 진리와 비 진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면 계속 도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새롭게 전진할 수 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힘을 모으고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재난을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 의식으로 하나 될 때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렵다고 여기는 그 어떠한 일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

목양칼럼



김정용 목사  
(중울산교회 담임)

옛날 중국 진나라에 ‘계자주’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청렴한 사람으로서 세속적인 정치에 환멸을 느껴 벼슬을 마다하고 산중으로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가 갈수록 어수선했다가 사 람들은 ‘계자주’를 필요로 했다. 많은 사람이 그가 있다는 산을 헤매며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고심하던 사람들은 산에 불을 지르면 그가 살려고 나오지 않을

까 싶어 산에 불을 놓았다. 하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고 끝내 불에 탄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날 사람들은 불이 원수처럼 되었다고 하여 부엌에 불을 넣지 않고 전날에 만든 찬밥을 먹는 날로 정했다. 이것이 바로 한식(寒食)의 유래다. 많은 사람이 지조에 대해 말할 때 곧잘 ‘계자주’를 들곤 한다.

이제 두 주 후면 부활절이다. 카렌다를 보니 이번 부활절은 한식과 겹친다. 한식을 생각하다보니 불현 듯 “계자주”가 생각이 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우리는 정말 지조(志操)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공직자들과 정치지도자들 가운데 양심과 지조를 따라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일삼고 자신의 유 불리를 따라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끊임없이 변신을 꾀하는 정치인들을 보노라면 마음이 씁쓸하다 못해 분노를 느끼게 된다.

간혹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만의 공동체에서 배신자로 몰아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 실태이다.

최근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며 정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에 편승하지 않고 술한 알박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과 지조를 지키며 검찰로서의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다가 퇴임한 전직 검찰총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하루아침에 대권후보 1위에 등극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은

양심과 지조를 따라 처신하는 지도자 목이 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수없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가 하면, 심지어 목사를 가운데서도 신학과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않고 시대의 기류에 편승하여 이 교단 저 교단으로 옮겨 다니는 이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권에 야무지는 어용 목사가 있는가 하면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가 세법 변경에 재판을 받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돈 받고 이단을 풀어주는 목사들도 있다. 프랑스의 문학가 ‘로맹 롤랑’은 인생을 가리켜 ‘업속하다’고 표현했다. 즉 최선의 가치를 가장 큰 보람으로 삼는데 있다고 한 것이다.

모름지기 땅에 것보다 위에 것에

최상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라면 선한 양심을 따라 적어도 신학과 신앙에 지조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본분일 것이다.

한식의 원조인 “계자주”를 생각하다보니 과거의 우리의 신앙 선배들 가운데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하나 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끼워하지 않고 왕명을 거부하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넵고, 그리고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면서 신사 참배를 결행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신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워진다. 모름지기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라면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신앙의 지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 이해하기 7.

신학&신앙



유 정 선  
(한국성서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지난 호에 이어 하나님 이해하기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Decree)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정의하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영원하신 계획이다. 즉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허용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세우신 영원한 목적으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절대적인 영역과 허용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섭리영역이란 이사야 49:9-11, 예베소

서 1:11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실로 변경이 불가능한 영역을 말하며 허용적 섭리 영역이란 출애굽기 32:1-14, 로마서 6:1에서 알 수 있듯이 품성적 존재들에게 자유선택권을 부여하시는 사항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뜻에 관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실례로 들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섭리, 보존, 관여, 예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섭리(Decree)는 말 그대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상의하여 결정하신 사실들(Eternal Council of God)로 이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및 법칙(영계 및 모든 존재를 포함)을 말한다.

이 섭리 속에 보존, 관여 및 예정이 포함된다. 따라서 하나님이라고도 이 섭리를 아무 때나 무효처분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신다.

이 섭리 속에는 자연법(natural

law)이라고 일반 학계에서 부르는 보존(preservation)이 있다. 이는 물질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및 계획을 말하는데 우주 질서를 유지하며 생명의 발생, 존속, 반복 및 물질의 생성, 존속, 퇴화의 원리 등 전체를 포함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모든 물질계는 이 보존의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보존 속에 다시 품성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인 관여(providence)하심이 있으며 이는 인류의 역사 및 인간관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법칙 및 목적으로 성서적 우주관, 인생관, 역사관에서 볼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인 사탄, 악령, 천사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 천사들이 모두 포함된다.

품성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관여하심 속에 특히 죄짓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 예정(Election)이 있는데 이는 사탄이나 악령 등 타락한 영계의 존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교리이다.

예정이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인 개념(brain picking)이다. 논리적 개념이란 하나님께서 예정을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사건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결정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정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섭리, 보존, 및 관여하시는 역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살 필요가 있다.

예정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타락 전 예정설(Supra-Lapsalianism)이다. 이는 하나님의 존엄성에 기초한 이론으로 예정이 성취된 것은 타락 이전이었다는 주장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중예정설(Double Predestination)이 그 특징이며 이는 베르코프(Berkhof), 셰드(G. T. Shedd), 스트롱(A. H. Strong)을 비롯하여 대체적으로 칼빈주의자들이 이를 지지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는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한 역사가 되므로 제한된 대속론(Limited Atonement)이, 그리고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에게 성령의 책망하시는 역사가 미치므로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가, 한 번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된 성령의 도우심은 필요 없게 됨으로 한번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된 성령의 도우심인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타락 전 예정설은 요한복음 3:16, 고린도 후서 5:17, 요1서 2:2, 베드로 후서 3:9 등 많은 성구와 상충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이론을 받아들이면 인간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로 출생했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며 동시에 중생이라는 개념은 신학 체제상 용납될 수 없으며 칭의와 중생을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105회기 고시부 준목고시 공고

1. 고시응시자격

고시응시의 자격은 헌법 제 64조 1항에 의거하여 목사후보생으로서 교단직영 또는 인준신학교 및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이다. 인준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총회개혁신학원, 개신대학원대학교, 오이코스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대한신학교, 총신대학교, 합동신학대학교(M.Div).

2. 고시일정

- ① 원서교부 / 서울지역 : 교단본부(02-742-3538) 호남지역 : 전북개혁신학원(063-252-1531)
- ② 제 출 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010-4020-0675)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이메일 : ynk8283@hanmail.net
- ③ 제출서류 / 1)고시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2) 신학교(연구원 과정) 졸업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4) 명함판 사진 3매

- 1) 원서접수 / 2021년 4월 30일 당일소인유효
- 2) 고시료
- ① 원서대 / 20,000원 ② 응시료 / 400,000원(논문 및 제출과목 심사비 포함)
- ③ 특강료 / 100,000원(교재비포함)
- ◆ 접수시 응시료 및 특강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3. 고시과목

- 1) 제출과목
- ① 논문제목
- 성경에 기록된 전염병의 사례연구 : 처방과 영적의미 : 20매
- 양식/ 글자크기/ 견경조 11 줄간격/ 180. 여백/ 위쪽 25mm 좌우 25mm 머리말 15mm 쪽번호 아래쪽 중앙 -1- 아래쪽, 꼬리말 15mm

- ② 성경주해
- 신약 : 요한복음 4:20~26 주께서 말씀하신 참 예배 5매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하되 A4 5매

- ③ 설교문
- 마태복음 28:16~20 예수님의 지상명령 선교의 메시지 4매
- 분량과 형식 / 논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A4 4매.

- ④ 제출마감 / 2021년 4월 30일 당일소인유효
- ⑤ 제 출 처 / (5492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17
- ⑥ 문 의 / 고시부서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4. 위원선정

- 1) 소위원 : 5명=부장, 서기, 회계, 황호관, 류현옥,
- 2) 심사위원 배정
- (1) 논문: 황호관, 서용진, 최승규
- (2) 주해: 정완득, 이부교, 최영일
- (3) 설교: 류현옥, 채영규, 신장균
- 3) 과목별 세미나 강사 선정
- 조직신학 : 황호관, 정지 : 류현옥, 교회사 : 정완득

5. 일정 및 장소

- 1) 예비소집 및 세미나: 5월 11일(화) 10시 전북개혁신학원
- 2) 고시일 및 장소: 6월 15일(화) 10시 총회개혁신학연구원

고시부장 강대민 목사 010-8007-1880  
서 기 유남규 목사 010-4020-0675

고시료송금계좌 : KB국민은행 807701-00-01009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고시부

총 회 장 이경근 목사  
고시부장 강대민 목사  
서 기 유남규 목사









이해동 목사  
(은누리사랑교회)

소그룹은 교회사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교회는 소그룹들의 태동, 발전, 계승의 영향을 받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교회사에서 나타난 소그룹 운동의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겠다.

1. 초대 교회의 소그룹 운동

교회를 볼 때, 소그룹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모인 것과 같은 가정교회 모임이었다.

그들은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이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는 동

안에도 로마의 카타콤 안에서 지속되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소그룹의 힘이 컸다.

혹자는 “초대교회의 소그룹에서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체험이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에 나타났다. 그리고 수평적인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언급한다.

이러한 초대교회 소그룹 사역은 예배, 양육, 교제, 선교 등이 통합된 것이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숫자적 증가와 영적 깊이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다. 또한 역사상 교회가 폐기와 성장의 활력에 넘쳤던 위대한 기간도 처음의 1, 2세기였다.

2. 중세 교회의 소그룹 운동

서방 로마제국의 멸망과 아울러 수많은 왕국들이 건설되었다. 이들은 모두

그 후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그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었던 두 개의 큰 조직들, 즉 수도원주의와 교황제에 새로운 기능과 권력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때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거대한 조직이 되어버린 것과는 달리 소그룹으로 모여 경건의 생활에 힘쓴 수도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도원 운동은 교회의 타락에 반대하여 일어난 운동이다. 수도원의 개혁 운동과 탁발 수도회의 발전은 중세시대 소그룹 운동의 활발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수도원 개혁 운동

중세의 수도원 자체도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수많은 수도원들이 노스מן과 헝가리인들에 의해 약탈되고 파괴되었다. 이러한 침략의 불길에 피한 수도원들은 탐욕에 찬 수도원장들과 교위 성직자들의 제물이 되어갔다.

수도원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맡았던 귀족들과 감도들은 오히려 수도원들을 사유 재산화하였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아퀴데인의 공작 윌리엄 3세는 소규모의 수도원을 창설하였다.

소그룹으로 모인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주된 작업은 베네딕트 규율집이 지시한 바대로 경건회, 즉 기도과 성경 강독으로 구성된 예배의 모임이었다.

이러한 수도사들의 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며, 논, 밭에서의 노동으로 손발에 흠이 묻지 않으면 이를 좀 더 순수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정당화되었다.

따라서 11세기에 있어서 교회개혁은 이미 수많은 수도원 공동체에서 벌어졌던 움직임의 연장으로서 파악되었다.

2) 탁발 수도회들

중세사회에서 도시들, 교역, 그리고

화폐 경제의 발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도시의 성자와 함께 부자와 빈자들 사이의 간격도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인구가 더욱 밀집하여 전통적 교구 문화는 도시를 향해 모여든 인구들의 종교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미 수 세기를 두고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 왔던 수도원 운동이 이와 같은 화폐 경제의 약점에 대응하여 인구 이동에 대처했다. 이들이 탁발 수도사들로서 그 의미는 구걸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피터 왈도와 프란시스이다.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은둔생활과 함께 작은 탁발 수도승들의 모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탁발수도회는 육체의 욕망과 세속의 유혹을 피하여 산 속으로, 음지로 숨어들어가면 다른 수도원 운동과 달리 다시 세상으로 나와 가난한 삶

을 실천하면서 설교와 봉사를 했다.

이들은 곧 성당 참사회원들이 수도원 공동체에서 모여 살되, 세속 생활로부터 분리되거나 신자들에게 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

정통신앙의 설교와 교훈을 가르쳤다. 타락하는 교회의 조직에 반대하여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성경을 연구하고 이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탁발수도회는 삶의 본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용기있고 능동적인 운동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중세시대의 소그룹 운동은 거대한 교회조직과 달리 경건한 수도승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소그룹으로 모여 지금 자족을 하며 성경연구와 설교에 집중하며 순회 설교도 행하였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적인 소그룹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경건에 치우친 소그룹 운동임을 중세 수도원의 운동

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3)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운동

생명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탄력을 잃고 있었던 중세교회 패성 프란시스(St. Francis of Assisi)와 같은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며, 훈련하고 봉사했다.

그들은 부패해가는 교권주의의 어둠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다. 유럽 재세파 운동(Anabaptist movement) 또한 가정집을 기초로 한 역동적인 소그룹들을 형성했다.

독인 남부 모라비아에 있는 후터파는 신앙 성경적 공동체 생활방식으로 삶을 영위함으로써 큰 영향을 끼쳤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어두운 중세 교회사에서도 소그룹은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다.

목양 내조記



양영자 사모  
재언교회

양영자 사모는 재언교회 원로목사 임중학목사의 사모로서 1975년 결혼 후 45년 동안 동역했다.

남편과 나는 시 할머니를 모시고 두 명의 시동생과 시누이가 함께 살았다. 우리는 신혼부터 6명의 가족이 함께 살게 된 것이었다.

1970년대의 우리나라는 저개발 국가였고 가난한 나라였으므로 복지제도가 거의 없었다.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점심 도시락을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다녔다.

나는 신혼이었지만 집안 일이 많았다. 밥을 많이 했고 도시락을 싸고, 씻는 빨래, 청소, 반찬 만들기를 할 새 없이 했다. 겨울에는 연탄불을 하루에

6~8장씩 갈았다.

새벽마다 청소자의 종소리가 들리면 연탄재 상자를 들고 나가서 버리는 일도 힘든 일이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사골에서 농사일에 바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 매주 1:1 성경공부를 2원씩 했다. 가끔 ESV기독대학인회, 우리가 섬기는 대학생 선교단체) 행사가 있으면 우리 집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ESV 학생들과 학사(BS)학생들이 졸업하고 계속해서 ESV를 섬기는 사 람들, 학사 에스라에서 빌려온 말로 평신도 성경선생을 뜻한다)들이 수시로 우리 집을 방문하여 식사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래서 늘 밥술에 밥을 많이 해주었다.

지금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만 그 때에는 거의 집에서 밥을 해 먹었다. 어떤 청년은 취업 준비를 하며 몇 달을 우리 집에서 식사를 했다. 다른 한 형제는 1년 동안 아침 식사와 도시락을 싸주었다. 나의 친정 동생도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 우리와 함께 살았다.

한편으로 나는 2남 1녀를 낳아 기르면서 많은 일을 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아가에게 젖을 먹일 때는 누워서 먹었다. 하루는 누워서 젖을 먹는데 맛

은 편 반바닥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 빨래 더미가 골라내처럼 보였는데 나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이 무서웠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시집살이 하던 옛여인들의 삶이 생각났다. 내가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가슴앓이 란 말을 많이 했다. 어머니들이나 며느리들에게 흔한 병으로 극심한 가슴앓이였다.

여인들이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생기는 핏병이다.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었다. 나는 그 여인들의 고통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그들처럼 어둡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삶에 서 체험하였다.

허리가 휠 만큼 고된 일을 하더라도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참을 수 있었고 이겨 낼 수 있었다. 나를 바라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새힘이 솟아났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

는 능력을 주셨다. 기쁘게 일하는 마음을 주셨고 찬양하며 일하게 하였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 부족함이 많은 나에게 치열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나에게는 해마다 열리는 여름 수양회가 휴가였다. 우리 아이들이 아가였을 때는 강의를 잘 들을 수 없어서 힘들었지만 3살만 지나면 나를 찾지도 않고 잘 놀았다. 나는 집안일에서 벗어나 나이에 주는 밤을 먹으며 수양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웠다. 남편은 수양회에서도 프로그램 진행에 참여하느라 바빴다.

수양회를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집을 찾길 때에 보이지조차 않는 남편이 아작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러한 아픔도 보석처럼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불신의 가정에서 자란 동생들은 우리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형과 오빠, 누나를 따라 교회에 다닐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았다. 예수님을 전하는 길을 간다고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동생들을 사랑했고

잘 도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었다. 동생들의 변화를 기대하며 인내하고 기도 했지만 우리의 무지와 무능함으로 마음이 아팠다. 때로는 답답하고 실망이 되었다.

동생들의 변화에 대해 느꼈던 남편에게 답답해서 속상 할 때도 많았다. 동생들이 반발하거나 거부 할 까봐 말도 못하고 애만 태웠다. 나는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약해졌다.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며 계속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쉽지 않았다.

나는 인내와 사랑과 섬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참으로 사랑이 없고 인내와 섬김이 부족한 사람인 것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없음과 인내하지 못함과 기도가 부족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연습하기로 했다.

지금 동생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다. 장로와 집사, 권사들이 된 동생들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조금 약하게 보이는 동생들도 있지만 모두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 한교연, 서울 달동네에 연탄 2만6천250장 기증

임원·교단 총무 등 20여 명이 직접 연탄배달 봉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1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인근 달동네에서 '2021년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2만6천25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한교연은 매년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가난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서울에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는 곳으로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증개축이 어려워 겨울 난방을 비롯, 모든 필요한 에너지를 연탄에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영세민 마을로 알려져 있다.

한교연이 이날 전달한 연탄 2만6천250장은 이곳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소외계층 약 220가정이 한 달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양이다.

이날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를 비롯한 임원, 회원교단 총무 등 20여 명의 봉사자들은 영하 10도의 매서운 한파에도 불구하고 리어카 또는 지게에 연탄을 실어 집집마다 직접 나르며 봉사의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 전국교회예배안내

**영복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

담임 **이충년** 목사

10218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숭포로 42-1 (대화동 1459-7)  
전화 010-8955-1752

**등명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30

담임 **류현욱** 목사

54610 전라북도 익산시 동천로1길 14-31(동산동)  
전화 (063)854-5180 / 010-9654-5180

**새은혜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삼일	7:00
금요일	9:00

담임 **박형진** 목사

1547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8 이노브라자 7층  
전화 010-8424-0688

**극동선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

담임 **박봉주** 목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14비길 11-9  
전화 010-9980-1156

**성인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

담임 **정완득** 목사

5508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번2길 24-6(삼천동17가)  
전화 010-7285-8291

**동주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7:30
금요일	8:00

담임 **김양석** 목사

1141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심일로 185번길 110-16  
전화 (031)873-6857 / 010-7221-5852

**월드비전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

담임 **김선영** 목사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전원로 32 전원마을 월드성가네  
전화 010-2301-0898

**임마누엘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3:30
수요일	7:30
	구약예배(금): 오후 7:30

담임 **윤서구** 목사

131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회광로534번길 6-8(상선동)  
전화 010-3722-9106

**증산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삼일	7:00
금요일	9:00

담임 **김정웅** 목사

44424 울산광역시 중구 함월3길 11-2(성안동)  
전화 (052)243-0255, 243-0344 / 010-3848-0691

**소성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일	7:30

담임 **이승규** 목사

551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양지길 16-11(삼천동17가)  
전화 (063)226-9111 / 010-7420-0634

**수원성심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부 9:00
	2부 11:00
수요일	오후 3:00
	7:30

담임 **박춘배** 목사

1622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12(연무동)  
전화 010-2752-1634

**은누리사랑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14:00
수요일	오후 7:00

담임 **이해동** 목사

서울 도봉구 도봉로 145길 33(방학동) 3층  
전화 010-2913-3059

**꽃밭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11:00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

담임 **박광식** 목사

02753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월로3길 1(상월곡동)  
전화 (02)915-0622 / 010-9161-0167

**한소망교회**



예배시간	
새벽	5:00
주일	오전 11:00
	오후 7:30
수요일	7:30

담임 **김정호** 목사

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여암길 10(반월동)  
전화 010-3652-9191

**김제반석교회**



예배시간	
새벽	4:30
주일	11:00
	2:00
수요일	7:00
금요일	9:00

담임 **이부교**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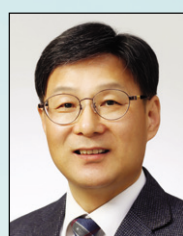
54338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청운3길 21  
전화 010-3657-0464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회 제105회기 총회주일 세례교인 헌금



총회주일은 총회산하 교회가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세례교인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모든 세례교인들은 1년에 한번 1만원 헌금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총대교회는 15만원 이상 6월 30일까지 입니다.



이경근 목사



강대민 목사



신연식 목사



박춘배 목사



박형진 목사



김양섭 목사



문만호 목사



이다윗 목사



김정호 목사



진상운 목사



박광식 목사



박경남 목사

## 제 105 회 기 세 례 헌 금 현 황

번호	교회	담임	노회	금액
1	평안교회	이경근 목사	전북동노회	1,000,000
2	성현교회	강대민 목사	서울남노회	440,000
3	디베라교회	신연식 목사	경서노회	200,000
4	수원성심교회	박춘배 목사	서울남노회	1,200,000
5	새은혜교회	박형진 목사	경서노회	500,000
6	동주교회	김양섭 목사	경중노회	150,000

번호	교회	담임	노회	금액
7	양곡제일교회	문만호 목사	서울남노회	100,000
8	찬양교회	이다윗 목사	서울남노회	300,000
9	한소망교회	김정호 목사	전북노회	1,100,000
10	에벤에셀	진상운 목사	전북중부노회	150,000
11	꽃밭교회	박광식 목사	경기노회	400,000
12	중심교회	박경남 목사	경기노회	200,000

### 입 금 계 좌

농협 301-0116-92128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국민 488401-01-22548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 교회의 형편에 따라 주일을 정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후 교단본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수증이 필요한 교회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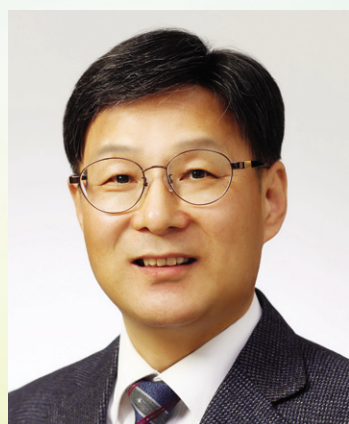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회** | 총회장 이 경 근 목사  
서기 신 연 식 목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6길 73-4(3층) 전화 02)742-3538, 010-6258-0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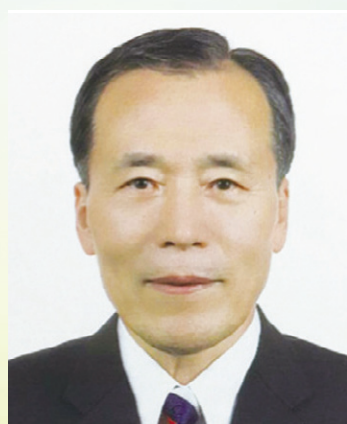
## 부활 “예수 다시 사셨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이경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복교회**



담임 이충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원성심교회**



담임 박춘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빛교회**



담임 임용태 목사